



Ayana Evans and Lisette Morel

아야나 에반스와 리세트 모렐

Run to Your Friend Until You Can't Anymore, 2015. Social Health Performance Club's show "Imperial Envy" at ABC No Rio in NYC; 3 hours. Evans designed a durational performance to carry out with Lisette Morel. The artists run to opposite ends of the proposed location, meet at a halfway point, and then run back to their original positions. They repeat this process for hours until they can't anymore. As the performance ends, Morel lifts Evans' legs into a wheelbarrow position. Evans then crawls on her hands as the two women, locked in this position, retreat from the public block they have been running along for 2-3 hours. This project takes place whether rain or shine. The piece is an embodiment of friendship/exposing-testing the vulnerabilities of our relationships with the self and with others. We run to our friends for: help for fun, for support, and sometimes we run to our friends until we cannot do it anymore, either out of shame or rejection on one friend's part.

<지칠 때 까지 너희 친구에게 달려가라>, 2015. 뉴욕 ABC NO Rio 주최 "제국의 부러움" 사회 건강 퍼포먼스 클럽을 위한 퍼포먼스; 3 시간. 에반스는 <지칠 때 까지 너희 친구에게 달려가라>는 인내 퍼포먼스를 디자인했다. 그 퍼포먼스는 항상 리세트 모렐과 함께 수행한다. 그 두 작가는 서로 반대되는 지점에서 마주보고 달리기 시작하여 중간에서 만나고 다시 원 위치로 뛰어간다. 그 둘은 이 달리를 지쳐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 까지 몇 시간 동안 한다. 달리기 종말 무렵 모렐은 에반스 다리를 들어 올려 자기 허리에 감는다. 바퀴 손수레 모양으로 모렐에게 거꾸로 매달린 에반스는 기어서 그들이 2-3 시간 뛰어 돌아다니는 블록에서 퇴장하면 퍼포먼스는 종료된다. 퍼포먼스는 우천과 관계없이 수행된다. 이 퍼포먼스는 자아에 대하여 또 타자에 대하여 깨지기 쉬운 우정 관계를 드러내고 시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현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를 향해 달린다. 재미, 위로, 혹은 도움을 받기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를 향하여 달린다.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까지. 지옥 때문에 혹은 친구의 거부 때문에.

THE NECESSARY SHARE (aka. PUMASH)

피할 수 없는 공유 (혹은 품앗이) 실현되지 못한 활동

Ayana Evans and Lisette Morel, Chemin Hsiao, Hayoon Jay Lee, Jongil Ma, Dominique Paul, and Suh Yongsun.

아야나 에반스와 리세트 모렐, 샤오체민, 이하운, 마종일, 도미니크 폴, 서용선

Introduction

THE NECESSARY SHARE (aka. PUMASH) is a pilot project designed to support emerging or underrated artists of color or artist collectives by exhibiting their new works to bridge the gap of indifference and remoteness between races, ethnicities, and classes. The 2020 exhibition was supposed to happen in Inwood Hill Park in Spring to take advantage of the greenland and the season that attracts a sizable diverse population of all backgrounds and effectively increas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works presented. However, due to the COVID-19 PAUSE, it couldn't happen the way it was planned. Thus, the Korea Art Forum has decided to make a broadsheet with the hope of engaging the public via the web and printed matters.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bring people together—professional members in the New York art world; diverse park visitors of all ages, genders, races & ethnicities; and residents of the Inwood neighborhood—to empower the Northern Manhattan community and advance a field of contemporary art that is diverse, equitable, inclusive, and accessible. The project aims to disrupt the conventional perception and any further development of the contemporary art field as a zero-sum arena or a contained marketplace, where its members rival one another to dominate the field (and perhaps increase private wealth).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market-driven, colonialist, militant, and confused interpretation of modern art as contemporary, this project suggests a place where

contemporary art turns into collaborative labor that produces non-exclusive and non-rivaling public resources that we all have to share and participate in protecting and cultivating. With this conceptual framework in mind,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submitted energetic and thought-provoking proposals.

Ayana Evans proposed *Run to Your Friend Until You Can't Anymore*, a durational performance of running with her friend, Lisette Morel, for hours, aesthetically reconstructing the vulnerability of one's relationships with the self and with others. Another artist who wanted to contribute a performance is Dominique Paul, who planned to walk in a wearable that she made. *The Median Income Per Household Wearable* in Inwood has many LED bulbs attached to it and the LEDs change their colors when the artist crosses from a street block to another, of which the median income levels are different.

These performances were enhanced by the participatory work of Hayoon Jay Lee, who submitted a couple of photoshopped images that depict groups of people sitting on the park's lawn or walking in the park. They are thought of as members of the Inwood community sharing dialogues about the Korean division. Chemin Hsiao imagined offering a watercolor painting workshop to park visitors for a unique location painting experience.

Alternatively, Hsiao also thought of creating a mural painting that reflects its surroundings like Jong Il Ma, who envisioned geometric wooden blocks placed against a plain wall. Suh Yongsun was going to install a pair of semi abstract wooden figures

of a man and a woman, which are facing one another across a pathway of the park and taller than the average height of people.

Terms like collaboration,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are linkages that connect these different artistic approaches to addressing today's critical issues, such as gentrification, inequity, and racism, that are profoundly entrenched in all sectors of our society. Together, they create a platform for the public to critically explore the specific impacts of the current neoliberal market economy on the everyday life of people on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By creating a participatory platform, the project will empower the participants as they share joint authorship of the artwork, whose semantic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public and language. The project transforms the public from passive consumer or mere recipient of the artwork to active producer of it, whose significance as a cultural object has to be first vested by the public. By doing so, the project highlights a framework of contemporary art that advance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human as a social being, shifting the conventional discourse that grasps contemporary art as being based on the divisive logic of contradiction. Contemporary art is a kind of commons that belongs to all people regardless of age, sex, gender, race, ethnicity, and class.

KAF's board and staff members thank the participating artists who readily accepted our invitation to share their valuable work images with the public. We also thank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nd the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for their support of this program.



Suh Yongsun

서용선

Left : *Man and Woman 1*, 2014. Acrylic on wood board; 270 x 43 x 45 cm
Far Left : *Man and Woman 2*, 2014. Acrylic on wood board; 270 x 48 x 43 cm

왼쪽: <남과 여 1>, 2014. 나무 보드에 아크릴릭; 270 x 43 x 45 cm
맨 왼쪽: <남과 여 2>, 2014. 나무 보드에 아크릴릭; 270 x 48 x 43 cm



사업 소개

<피할 수 없는 공유 (혹은 품앗이)>는 작가 콜렉티브나 신진작가, 혹은 피부색으로 인하여 과소평가된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된 시험 사업이다. 계급 및 인종, 민족성들 사이에서 고립과 무차별 등으로 생기는 간극을 연결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도와준다. 2020년 전시는 올 봄 인우드 힐 파크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양하고 많은 대중을 끌어 모으는 녹색지역과 시즌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였다. 방문객이 많으면 발표된 작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의 '코비드-19 후지'로 인하여 전시는 계획된 대로 대로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코리아아트포럼은 신문지 크기의 출판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출판물과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라도 관객과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목적은 사람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것이었다. 그 의도는 뉴욕 예술계에 품담고 있는 예술 관계자; 민족과 인종, 성, 나이를 초월하여 모두를 아우르는 공원의 방문객; 인우드 지역의 주민들을 한 자리로 모아 맨하탄 북부 지역공동체에 동력을 공급하고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동시대미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업은 기존의 동시대 미술 분야의 지각행태를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동시대 미술 분야를 일정한 한계 안에 갇혀진 시장으로 보는 시각,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아마도 개인의 부를 증가하기 위하여) 작가들이나 행정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제로섬의 각축장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해체하는 시도이다. 동시대 (contemporary) 미술을 현대 (modern) 미술로 혼동하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좌지우지되고

식민주의적이며 군사적인 해석의 대안인 이 사업은 동시대 미술이 협력 노동으로 전환되는 자리를 제안한다. 그 협력 활동은 비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공공재원을 생산한다. 그 재원은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갖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것을 보존해야 하고 양성시키는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만 한다. 이런 개념적 틀을 고려하여 참여 작가들은 힘이 넘치고 사고를 자극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아야나 에반스는 <지칠 때 까지 너희 친구를 향하여 달려가라>를 제안했다. 그 작업은 인내 퍼포먼스이다. 작가가 그의 친구 리세트 모렐과 함께 몇 시간동안 달리는 활동이다. 자아와 타자에 대한 관계의 취약성을 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퍼포먼스를 제안한 또 다른 작가는 도미니크 폴이었다. 그는 그가 소수 제작한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걷는 작업 <인우드의 한가속 당 평균 수입 의상>을 제안하였다. 그 의상은 많은 LED 전구가 부착되어 있다. 작가가 한 거리에서 다른 거리로 걸어가갈 때 그 거리의 지역의 가족당 년 평균 수입에 반응하여 전구들의 빛은 변한다.

이런 퍼포먼스는 다른 참여적인 작업에 의하여 강화된다. 이하운은 포토샵으로 제작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 사진은 공원의 잔디에 원을 그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공원의 산책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가상의 사람들을 묘사한다. 그들은 인우드 지역의 주민들이고 작가가 던진 한국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토론한다. 샤오체민은 공원의 방문객에게 아와 현지에서 수채화를 그리는 현장체험형 워크숍을 제공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또 다른 옵션으로 그는 주변 환경을 반영하는 벽화를 그리는 생각도 했다. 마종일은 벽에 기하학적인 형태로 제작된 나무

블럭을 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구상했다. 서용선은 남성과 여성을 반구상적으로 재현하는 두 개의 나무 조각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 조각은 실제 사람들의 키보다 높고 산책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는 모습으로 설치 될 계획이었다.

협력, 상호작용, 참여 등의 용어가 이상의 상이한 예술적 접근 방식을 연결하는 고리들이다. 쉐프트리케이션, 비행평상,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깊숙히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다. 작업들은 그런 비판적 이슈를 지적하고 한 자리로 수직되어 관객들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리들의 일상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고 탐색하는 무대를 창조한다. 참여적인 무대를 형성하는 이 사업은 참여 관객의 위상과 동력을 강화한다. 관객은 단순히 제시된 작업을 소모하는 수동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작업의 생산에 실제 참여하는 작업의 능동적인 저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작업의 의미는 관객의 참여와 언어로 부터 분리될 수 없다. 문화물로서의 작업의 의미는 우선 관객의 확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를 구축하여 이 사업은 '동시대 미술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전개된다'는 동시대미술의 경계를 구분 짓는 한 방식을 조명한다. 그 방식은 '모순의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고 해석하는 기존의 동시대미술 자리를 움직인다. 동시대미술은 나이와, 성, 성적취향, 인종, 민족, 계급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일종의 공유지이다.

카프의 보드와 스탠프 진은 이 출판사업에 참여를 쾌히 승낙하고 그들의 가치있는 작업의 이미지를 거리낌없이 공유해 주신 작가님들께 고맙게 여긴다. 또한 이 사업을 후원해 주신 뉴욕시 문화부와 뉴욕주 예술 위원회에 감사한다.

Organized by Korea Art Forum
코리아아트 포럼 기획

Administration & Korean Translation:
Heng Gil Han
행정 및 한국어 통역: 한행길

Project Director & Narrative: Erik Lee
프로젝트 디렉터 및 서술: 에릭 리

Graphic Designer & Promotion: David Lee
그래픽 디자인 및 홍보: 데이비드 리

Inquiries: info@kafny.org
문의: info@kafny.org

Published in June 2020.
2020년 출판

This program is supported, in part, by public funds from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nd its catalogue is made possible by the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with the support of Governor Andrew M. Cuomo and the New York State Legislature.

현 프로그램은 뉴욕시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재원으로 일부 진행된다. 관계 도록은 앤드류 M 쿠오모 뉴욕 주 지사와 뉴욕 주 의회가 지원하는 뉴욕주 예술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출판된다.





Day Parade of the Plants series, 2019. Acrylic on concrete barriers at the Elmhurst Sculpture Park; 2.5 ft. x 100 ft.

"The plants march forward and celebrate the rebirth of the Elmhurst Sculpture Garden, where everybody in the community is welcome to take a seat by themselves, or with friends." — from the artist's statement published at <http://www.cheminart.com/filter/journey/Day-Parade-of-Plants>

<식물 행렬의 날>, 2019. 엘머스트 공원의 콘크리트 도로 장애물에 아크릴릭; 2.5 x 100 피트
"식물이 행진한다. 엘머스트 조각 공원의 재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을 환영한다. 각자 혹은 친구와 함께 와서 자유롭게 자리 잡으면 된다." 작가의 노트에서 발췌. <http://www.cheminart.com/filter/journey/Day-Parade-of-Plants>

Chemin Hsiao 샤오 체민



Dominique Paul 도미니크 폴

Median Revenue dress, 2015. Walking performance in a dress with LED light; performance lengths vary.
The dress displays US census revenue data of the area where the artist is walking; Barclay's Center, Brooklyn, gentrification area, at the back of the Center are located four different revenue zones, 2015.

<평균 소득> 의상 (2015). 레드 전구로 장식된 의상을 입고 걷는 도보 퍼포먼스; 퍼포먼스 시간 가변.
작가가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의상의 전구는 소득 통계 조사 결과에 따라 빛이 바뀐다. 브루클린 바클리 센터,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2015년에 진행한 퍼포먼스. 센터의 뒤에는 소득이 상이한 4개의 영역이 존재한다.

Median Revenue dress, 2015. Walking performance in a dress with LED light; performance lengths vary.
The dress displays US census revenue data of the area where the artist is walking; Irish Hunger Memorial, Financial District, Manhattan, a very high revenue zone, 2015. The artist interviewed the passersby and recorded their opi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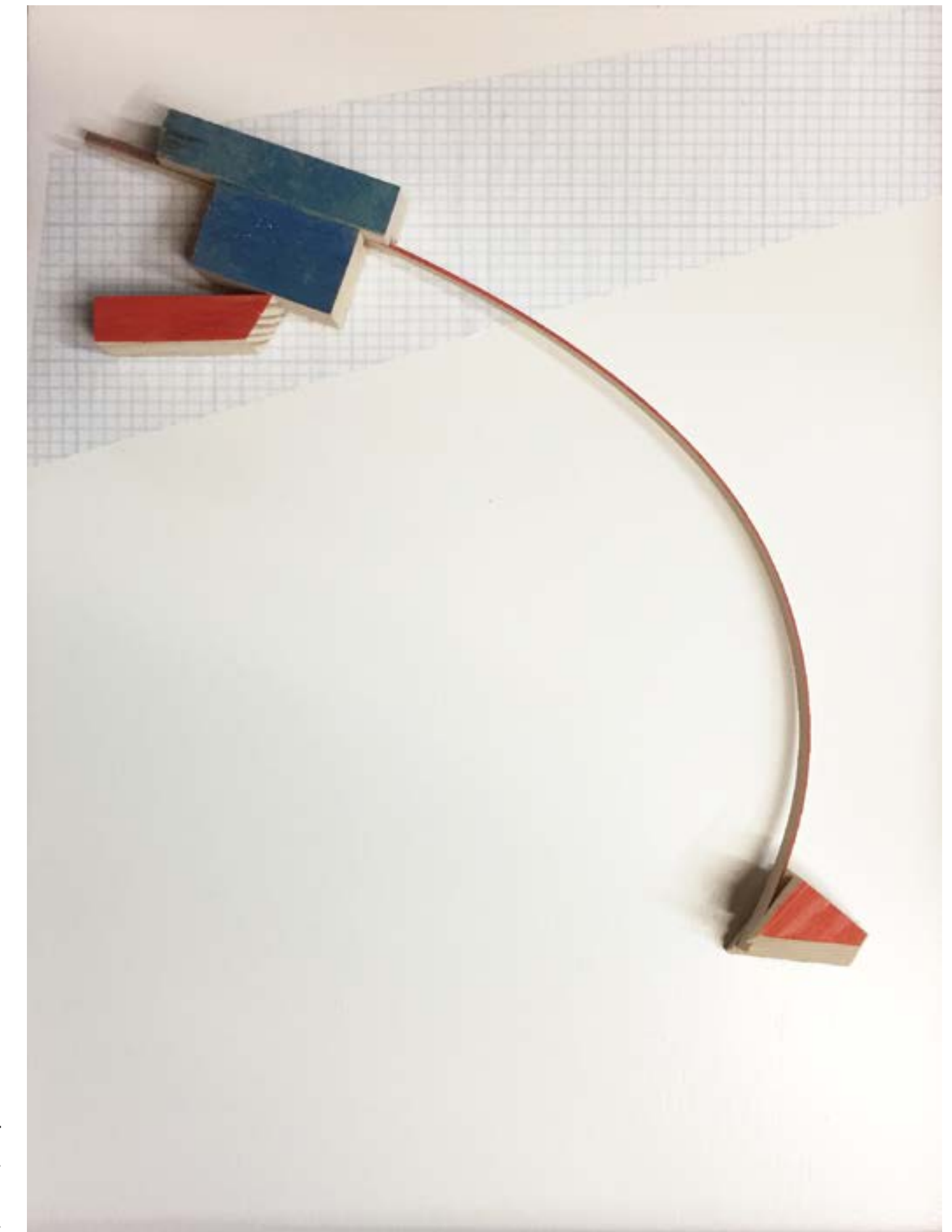
<평균 소득> 의상 (2015). 레드 전구로 장식된 의상을 입고 걷는 도보 퍼포먼스; 퍼포먼스 시간 가변.
작가가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의상의 전구는 소득 통계 조사 결과에 따라 빛이 바뀐다. 2015년 맨하탄 금융가의 아이리쉬 기아 기념비 앞에서. 그 지역은 최고 소득 영역이다. 작가는 행인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의 견해를 녹음하였다.



Hayoon Jay Lee 이하윤

Shared Labor, Shared Land, 2020. Digital Collage; dimensions variable.
Mock-up collage for the eponymous performance organized by a number of Korean-American artists, curators, and art historians i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공유 노동, 공유 대지> 2020. 디지털 콜라주; 가변크기.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거주 한인 작가, 큐레이터, 미술학자 그룹이 모여 기획한 동명의 퍼포먼스 가상 콜라주.



Jongil Ma 마종일

Reminiscence-II-4, 2019 9" x 11", Painted Board, Wood, Grid Paper.
Using scavenged materials to explore and reflect on the interrelated and parallel relationship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worlds.

<회상-II-4>, 2019. 색칠한 보드와 나무, 모눈종이; 11 x 9 인치.
주운 물건을 사용하여 물리적 심리적 세계의 상호연관성과 평행성을 반성하고 탐구한다.